



# EPL 구단의 CSR 실태와 발전 제안

『환경과 인간』 과 『경영윤리』 강의 페어링

경영학과 김윤호  
신호재 교수님 지도

## 연구 동기

2021년 10월, 환경보호를 위한 모토로 ‘Champion Sustainability Practice’가 개최되었다. 모순적으로, 참가 팀인 리즈 유나이티드는 전용기로 단 17분을 이동하며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켜 축구 팬들에게 크게 지탄 받았다.

지난 100년간 축구 구단들은 고도의 상업화를 거쳐 기업의 형태를 띄게 되었다. 21세기의 트렌드에 맞게, 각 구단들은 사회적 책임(CSR)을 질 것을 요구 받는다. 대부분 구단은 유망주 육성과 지역 인프라 구축으로 이를 수행하는데, 이들이 환경 보존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

축구 중주국인 잉글랜드를 연고로 하는 세계 최고의 리그 EPL 구단들의 CSR 실태를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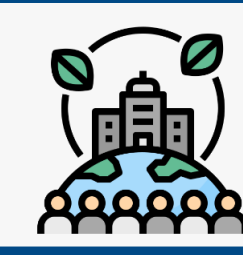
대회의 취지에 의문을 갖게 한 리즈



## 환경과 인간

환경과 인간에선 환경오염의 종류와 그 심각성에 대해 배웠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오염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다.

- 인간생활과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등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 자원의 낭비: 과잉생산으로 유발된 자원의 낭비와 재생산되는 쓰레기
- 대기오염: 온실가스 및 탄소배출로 인한 대기질의 오염 및 오존층 파괴
- 수자원 낭비: 담수 분배의 불균형과 무분별한 수자원의 사용 문제



## 경영 윤리

경영윤리에선 Trevino가 정의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CSR (Corporate's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해 배웠다. 본 연구에선 CSR의 다양한 분야 중 환경 보존에 직접 관련된 Environmental Sustainability에 집중했다. 이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의미하며 후대도 자아를 실현 할 수 있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 EPL의 CSR 실태



### 매치데이 쓰레기 문제 - 폐기물

19/20 시즌 기준 EPL에선 총 2,117 톤의 쓰레기가 버려졌다. 가장 많은 쓰레기를 배출한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경기당 무려 8톤을 배출했다. 2022년 기준 대부분 구단은 음식을 친환경 플라스틱, 종이 용기에 담아 제공하고있다. 그러나 아직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제제는 부족하다. EPL은 매 시즌 £ 600,000, 한화로 약 10억원을 쓰레기 처리에 사용하고 있다. 환경과 비용차원에서 모두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유니폼 등 축구용품 - 자원낭비



EPL 대부분 구단들은 2020년을 기준으로, 나이키 등 스포츠 업체와 협업해 100% 재활용 가능한 유니폼만을 생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맨체스터 시티는 의류 브랜드 ‘퓨마’와의 Re-Jersey 프로젝트를 통해 팬들로 부터 이전 시즌의 유니폼을 돌려받은 후, Return, Recycle, New Garment, Repeat 단계를 거쳐 재활용을 거듭한다. 페트병과 과거의 유니폼을 재활용해 만들기 때문에 자원낭비가 적다 평가했다.



### 대중교통 남용 - 대기오염

EPL팀들은 버스, 비행기, 기차를 통해 원정 경기장으로 이동한다. 가장 먼 구장 간의 거리가 354마일, 약 530km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교통수단은 구단 버스이다. 그러나 앞선 리즈의 사례처럼 20분을 채 초과하지 않는 근거리 비행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내 인기 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시 레스터 시티와의 원정경기를 치를 때 단 10분을 비행한 후 다시 버스를 이용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 잔디관리- 수자원 낭비



EPL엔 20개의 홈 구장이 있으며 각각의 구단은 연습 구장, 유소년 구장 등 여러 잔디 시설을 사용한다. 잔디를 좋은 컨디션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하루에 100,000L의 물이 필요하다. 여러 구단은 물 없는 화장실, 꼼꼼한 수자원 사용 계획을 세워 낭비를 막지만 미비한 수준이다. 최근 구장이 지어진 맨체스터 시티는 비교적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빗물을 저장해 사용하고 이로 맥주를 만드는 등 캠페인을 개최하기도 했다.



## EPL to Environmental Performance League

EPL을 보다 환경 친화적인 리그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고안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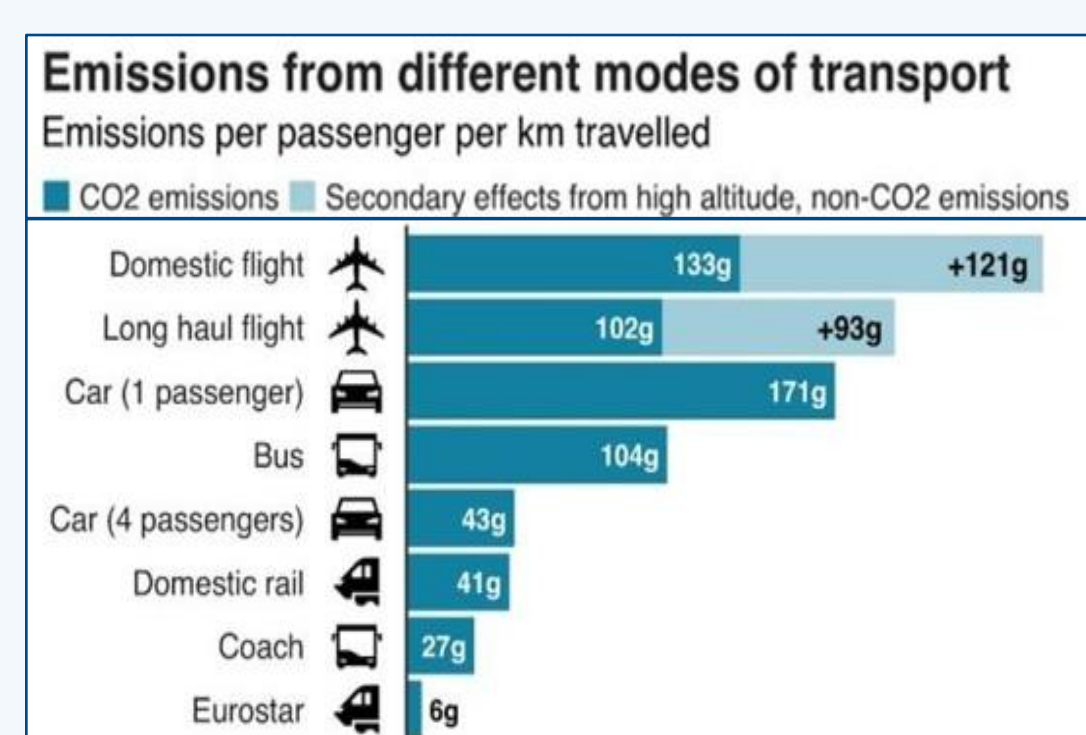
### Green Pie Awards

EPL에는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 하프타임에 파이를 사 먹는 ‘Half Time Pie’ 문화가 있다. 매 시즌 각 팀의 관중 1인당 쓰레기 무게를 측정하고, 그 수치가 가장 낮은 구단에게 EPL측에서 무료로 Half Time Pie를 제공한다면 관중들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강압적으로 음식물을 통제하기보단 문화를 존중하며 서로 득이 되는 방향으로 쓰레기를 해결할 수 있다.



### Short Flight Restriction

〈Figure 1〉에서 볼 수 있듯 단거리 비행은 오염물질 배출 효율이 가장 나쁜 이동수단이다. 프랑스 정부는 기차와 버스로 대체할 수 있는 2시간 30분 이내의 단거리 비행을 법적으로 금지시키기도 했다. EPL 구장은 모두 비행기로 2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다. 그러나 부상자 호송, 컨디션 관리 등의 수요가 있으므로 1시간 이내 비행을 제한한다면 환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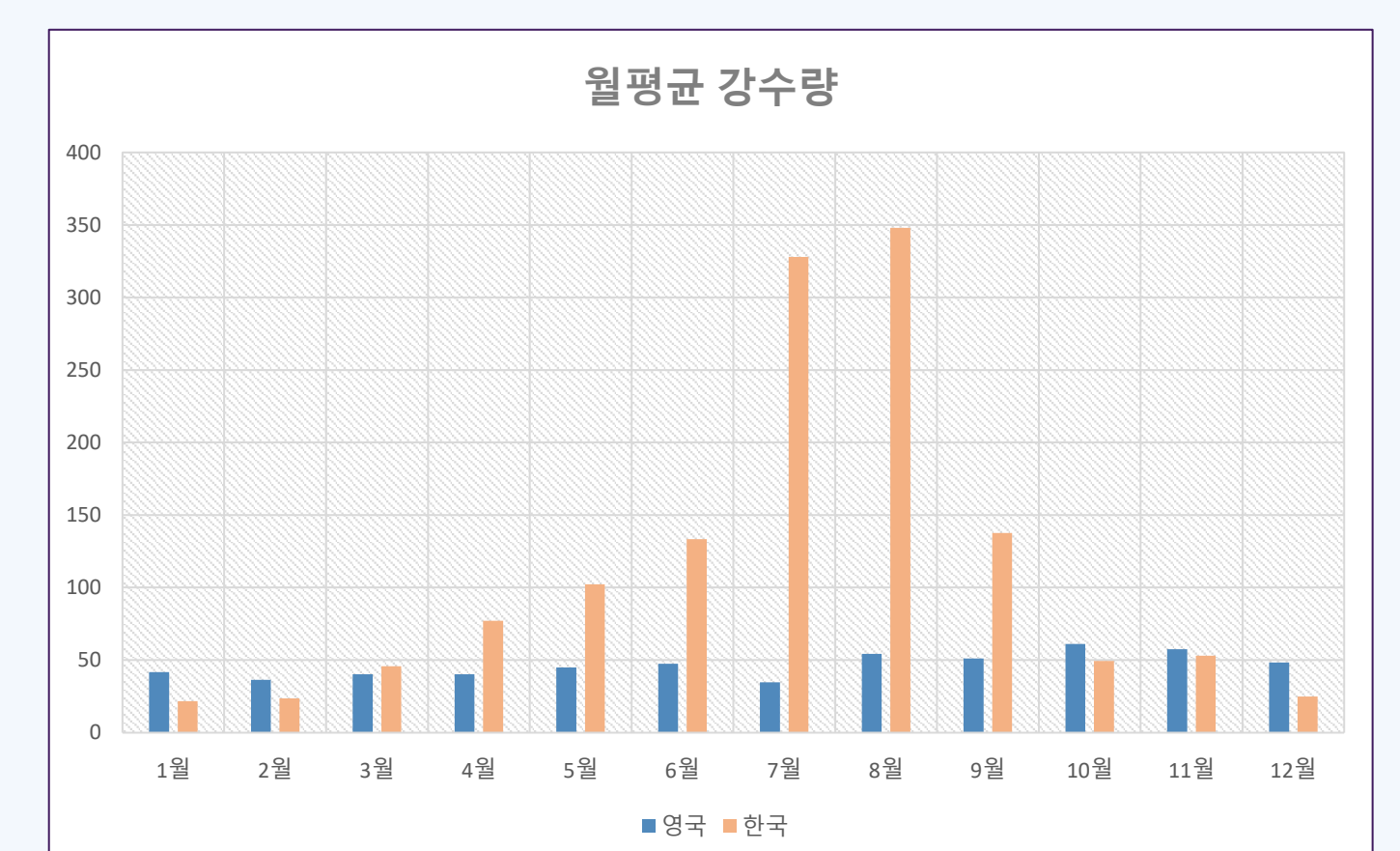


〈Figure 1〉 대중교통별 오염물질 배출



### Raincity Project

수원시는 레인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빗물을 저장하고 활용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은 공학적으로 설계되어 빗물 22,000 톤을 저장할 수 있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빗물 18,000 톤을 경기장 잔디 관리와 수원시 열섬 방지에 사용했다.



〈Figure 2〉 영국과 한국의 월평균 강수량

〈Figure 2〉와 〈Figure 3〉를 통해 한국은 장마의 영향으로 월별 강수량의 편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영국은 매월 강수량이 고르게 분포 되어있다. 즉, 빗물 저장의 효율이 우수하다 평가할 수 있다.

	영국	한국
평균	46.46	112.02
표준편차	8.02	108.05
연간 강수량	555.7	1344.2

〈Figure 3〉 통계수치



1884년 건축된 Liverpool의 'Anfield'

EPL엔 19세기 건축된 경기장이 매우 많다. 여러 구단들은 근래 구장의 보수와 재건축을 진행하는데, 이 때 빗물 저장과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잔디 관리 시 수자원 낭비의 최소화화 영국의 폭염 문제 해결에 모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